靑 개편 광주·전남인사 全無 … 개각도 외면?

소통 창구 사실상 단절 지역민 허탈

'국민 통합형 인적쇄신' 취지 무색

국민통합형 인적쇄신을 다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조직 및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제3기 청와대 수석 비서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광주·전남지역과의 소통 창구가 사실상 단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개편 결과처럼 추후 이뤄질 개각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제외되면서 '국민통합형 인적쇄신'의 취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과 홍보수석, 인사기획관 등을 신설하고 수석 5명을 교체 및 수평 이동시켰다.

그러나 전남 출신의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이 물러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형 인적쇄신 의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과의 소통 창구 확대를 기대했던 지역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다.

일단 이번 인사 결과는 적어도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 1~2명 정도는 수석 비서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지역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데다 43명에 이르는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서 지역 출신은 정용화 연설기록 비서관과 임종룡 경제비서관 등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이번 참모진 개편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전북 출신이 2명이나 중용됐다는 점에서 호남을 배려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물론 일부 아쉬움도 있겠지만 호남을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나누어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이번 청와대 인사는 호남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민심은 전북 인맥 중용은 수용할 수 있지만 진정한 국민 통합형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광주·전남지역 출신 중용의 배려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개편 결과에 따라 추후 이뤄질 개각에 대한 지역 민심의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호남을 배려한다며 전북 출신 인사들만 대거 중용되고 정작 광주·전남 출신 인맥은 오히려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여권과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섰던 광주·전남지역의 특성상, 인재풀이 상당히 좁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권 차원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개각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제 3기 靑 참모진 명단

(* 신임)

직위	내정자	출생지·출신대	주요경력
■대통령실장 및 수석			
대통령실장	정정길(67)	경남·서울대	서울대 대학원장, 울산대 총장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윤진식(63)	충북·고려대	산자부 장관, 한국산업대 총장
국정기획수석	박재완(54)	경남·서울대	17대의원, 정무수석
정무수석 *	박형준(50)	부산·고려대	17대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민정수석 *	권재진(56)	대구·서울대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외교안보수석	김성환(56)	서울·서울대	駐오스트리아대사, 외교부2차관
홍보수석 *	이동관(52)	서울·서울대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변인
사회정책수석 *	진영곤(52)	전북·서울대	복지부 실장,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문화 *	진동섭(57)	전북·서울대	서울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장
제1대변인 *	박선규(48)	전북·고려대	KBS 기자, 언론2비서관
제2대변인 *	김은혜(38)	서울·이화여대	MBC 기자, 부대변인
■대통령 특별보좌관			
정무특보 *	맹형규(63)	서울·연세대	15·16·17대 의원, 정무수석
경제특보 *	강만수(64)	경남·서울대	기획재정부장관, 국경위원장
과학기술특보 *	이현구(70)	경기·서울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IT특보 *	오해석(58)	경북·서울대	경원대 교수
국민통합특보	김덕룡(68)	전북·서울대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무장관
언론문화특보	이성준(64)	서울·서울대	한국일보 부사장, 관훈클럽 총무

靑 새 참모진 인선 '철통 보안'

이 대통령 포함 2~3명만 인사내용 알아

지난달 31일 단행된 청와대 중폭 개편은 막판까지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인사 작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베일에 가려졌다. 발표 전까지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에서 인사 내용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2~3명에 불과했다는 후문이다.

박형준 정무수석과 이동관 홍보수석 정도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나머지 수석의 거취나 후임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특히 '부대통령실장'급인 정책실장직을 신설해 정책관련 수석실을 모두 관장하게 하고 윤진식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을 겸임토록 한 것이나 기획관급 경제보좌관의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은 전혀 의외의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 측근 그룹에 속하는 인사들조차 "인사는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정도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른바 '인사 취재'에 열을 올렸지만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인사비서관실의 존안 자료를 토대로 비선 라인 대신 인사라인의 극소수와만 협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 내용이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유출에 대비해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철저한 입단속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인사 하마평이 나돌면 일하는 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과 특정 직에 거론만 됐다가 임명되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점을 많이 고려하신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이동관 홍보수석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조각 때부터 1년 6개월 이상 청와대 수석비서관직을 유지, '장수 수석'으로 남게 됐다. 특히 언론인 출신의 이동관 수석은 이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에서 물러나 2명의 대변인을 휘하에 거느리는 홍보수석으로 격이 높아졌다.

박재완 수석은 초대 정무수석에서 지난해 6월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이번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신임을 받아 국정기획을 총괄하게 됐다.

/연합뉴스

/ 청와대 정책실장·수석 프로필 /

MB 경제정책 보좌 정통 관료

윤진식 정책실장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보좌해온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지난 1997년 대통령 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외환 위기의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일화로 유명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올랐다가 전북 부안 원전센터 부지 선정 문제로 사직하는 등 부침이 심했다.

▲충북 충주(63) ▲청주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원 ▲행시 12회 ▲산자부 장관 ▲한나라당 대선 중앙선대위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 ▲한나라당 18대 총선후보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중도실용·친서민 정책 입안 기여

박형준 정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여권내의 대표적인 전략 이론가로 꼽힌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 대변인과 당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 등을 맡으면서 '이명박 사람'으로 부상했다.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차관회의와 대변인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의 홍보정책을 체계화함으로써 정권 초기의 정책혼선을 극복했고 최근의 중도실용 및 친서민정책을 입안,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부산(50) ▲대일고-고려대-고려대대학원 ▲중앙일보 기자 ▲동아대 교수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 대변인 ▲청와대 홍보기획관

친화력 탁월·업무처리 원칙 중시

권재진 민정

친화력이 뛰어나고 박학다식하며,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돋보이고 업무처리시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을 듣는다.

현대자동차 취업비리, 산업재해보험금 부당편취, 수입 돼지고기 불법 유통, 국방부 상대 조달 사기 등 수사를 이끌었고, 전주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장을 맡아 미 공군비행장 근처 벼 피해와 관련, 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구(56·사시20회) ▲경북고·서울대 법대 ▲부산지검 공안부장 ▲서울북부지청장 ▲서울남부지청장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대구고검장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현정부 초대 靑 대변인 역임

이동관 홍보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은 정통 언론인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 비교적 뒤늦게 공보특보로 합류했으나 폭넓은 대(對) 언론 관계와 특유의 정치감각으로 이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에 이어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서울(50)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우 ▲동아일보 정치부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요직 두루 거친 복지예산 전문가

진영곤 사회정책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두루 거친 복지예산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 22회로 동력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을 거쳐 1998년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다. 업무추진이 신속하고 판단이 예리해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린다는 평가다.

▲전북 고창(52)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예일대 경영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행시 22회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同 성과관리본부장 ▲同 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여성부 차관

20년간 교육계 몸담은 학자 출신

진동섭 교육문화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20여년 간 재직하는 등 줄곧 교육계에만 몸담아온 대표적인 학자 출신이다.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에 발탁돼 작년 8월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차기 회장으로도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전북 무주(57)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 ▲미국 시카고 대학 철학박사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장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